

#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 제안

정 희 정 · 최 철 용\*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석사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부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다다이즘의 예술에서 보이는 레디메이드의 예술적 특징을 정립하고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레디메이드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패션 분야에 대한 미적 가치를 제안하고,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적 패션 트렌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제안하는 선행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모스키노, 메종 마르시엘라, 준야 와타나베, 베트멍, 빅터앤롤 프의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션을 중심으로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다이즘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고 위 브랜드 컬렉션에서 보이는 레디메이드의 조형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오브제 고유의 미적 형태가 상실되어 새로운 조형성을 가지는 재창조성, 두 번째로 기성품의 형태를 활용하지만 기존 미의식과 개념을 벗어난 탈개념성, 세 번째로 형태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비정형성, 마지막으로 시대적 해학과 재미를 표현한 유희성 등의 4가지 조형적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로는 첫째, 버려진 제품을 재사용하는 환경성, 둘째, 재료의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경제성, 셋째, 기성품을 패션에 적용한 예술적 희소성 등으로 나누어 제안한 결과 경제성과 희소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디메이드를 활용하여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환경성과 희소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 경제성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 가치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한 오브제의 다양한 레디메이드의 표현 특성을 가진 패션디자인 분야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레디메이드, 다다이즘, 지속가능한 패션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교신저자: 최철용, [ciellion@hongik.ac.kr](mailto:ciellion@hongik.ac.kr)

접수일: 2020년 10월 23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30일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다이즘(dadaism)은 세계 대전 이후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전의 예술적 개념들을 부정하고 저항적인 태도로 시작된 예술 운동으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레디메이드(ready-made)의 출현이다. 기성품을 예술의 범주 내 오브제의 가치로 인정하게 되면서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과 건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 패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오브제를 패션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레디메이드 패션 디자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술적 가치를 가진 오브제형 패션으로 분류되어 발전하였다. 예컨대 기성품을 의상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기성품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패션에서의 대량생산과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들을 발생시켰으며, 유통 속도가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부산물과 폐기물들은 하나의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성품을 활용한 디자인을 하거나, 환경에 순응하는 디자인 등의 움직임은 패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레디메이드의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예술에서 정의하는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활용한 패션을 새로운 가치와 미적 관점을 추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레디메이드의 디자인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적 가치를 제안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다이즘에서 나타난 레디메이드의 예술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패션에 접목된 레디메이드 사례를 통해 표현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된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분석하여 제안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한다. 레디메이드의 특징을 위한 다다이즘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연구 논문 등을 통한 역사적 의미와 예술의 개념에서의 레디메이드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한다. 레디메이드의 예술적 특징을 가진 패션 사례는 보그 코리아([www.vogue.co.kr](http://www.vogue.co.kr)) 인터넷 사이트, 논문, 저널 등에 게재된 문헌 자료를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1990년부터 본 연구가 종료된 시점인 2020년 S/S까지의 최근 30년간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 브랜드 모스키노(Moschino),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베트멍(Vetements), 빅터앤롤프(Viktor & Rolf) 등의 디자인 중에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로 판단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브랜드 선정 기준은 기성품을 디자인에 활용하여 실험적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를 현재 패션 디자이너 3인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5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였고, 각 브랜드에서 표현된 레디메이드 디자인의 사례는 기성품 재료의 업사이클링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사례를 기반으로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레디메이드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패션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조형적 표현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다이즘의 운동 전개 및 배경

다다이즘은 세계 대전 직후 기존의 유행하던 예술의 기법과 절차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전 예술 모두를 거부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행하는 새로운 예술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현대 예술로 넘어가는 중요한 예술 사조로 자리 잡았다(Jeong, 2008). 다다이즘이 등장한 1914년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당대에는 세계 대전을 바탕으로 현대 물리학의 발달과 원자학 시대의 시작이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과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양자론 제안 후 기계론적인 세계상을 확률적 세계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새로운 물리학의 발견은 공간, 시간, 물질, 객체, 인과 등의 변화를 필요하게 만들었다(Ryu, 2005). 이는 대량 학살로 연결되어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으며, 과학의 문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예술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이성과 합리주의에 부정하는 예술들이 생겨났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당대에는 불안하고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이에 대해 반하는 태도로 기존의 가치와 개념에 저항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회피하는 낭만적, 환상적인 분위기에 취해있었다. 이에 다다이즘은 과거의 예술의 전통을 무시하고 반미적인 태도를 지니며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외형의 미에 집중하는 기존의 예술 사조들을 모두 부정하며 예술적 의미에 무의미적 태도를 보이는 새로운 예술 운동을 전개하였다(Frank, 2006).

다다이즘은 다양한 나라에서 운동처럼 발생하였는데, 다다리스트들은 예술 운동을 통해 기존의 모든 예술을 부정과 파괴하며 철저히 부정 정신과 우연성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형식

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형식 없이 무작위로 춤과 음악회 공연을 진행하거나 특징이 없는 즉흥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다의 운동은 스위스 취리히(Zurich)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1916년 독일 출신의 극작가 휴고 볼(Hugo Ball)이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라는 클럽을 개업하면서 취리히는 다다의 시초가 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을 피해 스위스에 시인과 음악가, 화가 등 예술가들이 모여, 기계의 발달로 인간들의 존엄성이 파괴에 따른 비판적인 시각은 기존의 전통과 예술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볼테르를 통해 그들의 부정적 견해, 즉 전쟁으로 인해 허무주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표출하였고, 이는 당대의 예술가들의 저항적 태도이며 그들만의 새로운 예술 표현 방법이기도 하였다(Suh, 2017). 또한, 취리히의 다다이즘은 세 가지 특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우연성, 동시성, 그리고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징들을 바탕으로 각 예술계에서 그에 맞게 변형되어 새로운 도전을 하였으나 전쟁이 끝을 향하면서 취리히의 다다 역시 끝을 향하게 되었다. 대표 작가로는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 마르셀 얀코(Marcel Janco), 장 아르프(Jean Arp)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Figure 1>을 볼 수 있다.

취리히에서 시작된 다다이즘의 움직임은 독일, 파리, 뉴욕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에 의해 다다이즘이 예술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독일의 다다이즘의 특징은 정치적 성향이 강했으며, 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과 정치적 활동과 함께 포토몽타주(photomontage)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작가로는 리하르트 휠젠베크(Richard Huelsenbeck), 라울 하우스만(Raoul Hausmann),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Figure 2>를 볼 수 있다. 파리의 다다이즘은 문학적인 특징을 가진다. 소설, 시집,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며 선언문을 만들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문학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적이며 대표 작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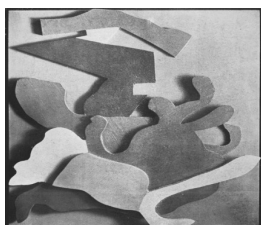


Figure 1.  
『Reproduced in 391, No. 8,  
1919』.  
From Jean Arp. (n.d.).  
<https://en.wikipedia.org>



Figure 2.  
『Millionen Stehen Hinter Mirl,  
1932』.  
From John Heartfield. (n.d.).  
<https://en.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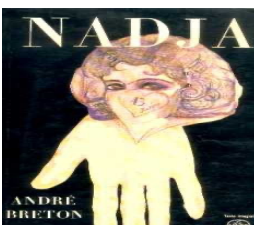


Figure 3.  
『Nadja, 1928』.  
From Nadja (novel). (n.d.).  
<https://en.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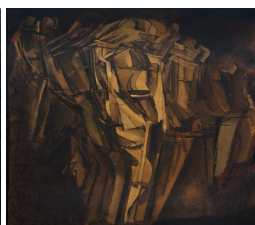


Figure 4.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2, 1912』.  
From Marcel Duchamp. (n.d.).  
<https://en.wikipedia.org>

작품으로는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의 「나자(Nadja, 1928)」(Figure 3), 「쉬르레알리즘(Surrealism) 제1선언」등이 있다(Shin, 2016). 뉴욕의 다다이즘의 특징은 전위적이며 비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1913년에 모던 아트 전시 아모리 쇼(Armory Show)에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은 <Figure 4>를 출품하였으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와 앙드레 브르통은 그의 작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전람회 역사상 보기 드문 경우였다. 이후 뒤상은 레디메이드를 예술로 시도하면서 새로운 오브제의 개념을 만들었으며, 현대 예술의 영역을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 작가 및 작품은 프란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 만 레이(Man Ray), 뒤상의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2, 1912』 등이 있다(Lee, 2007). 다다이즘은 당대의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의 흐름에 따라 문학, 음악, 회화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사실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말고도 후에 현대 미술에서는 팝아트, 정크 아트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 레디메이드의 개념

레디메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공산품’을 의미하지만, 예술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오브제이다. 마르셀 뒤상의 작업을 통해 예술 용어로서 예술적 측면에서 깊고 다양한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Yoon, 2017). <Figure 5>는 뒤상의 대표적인 레디메이드 작품이다. 1917년 뉴욕에서 파리의 앙데팡당(Independant) 전시를 모델로 생겨난 독립 작가회에는 누구든 미화 6달러만 낸다면 작품 2점을 출품할 수 있었다. 이 전시회의 위원이었던 뒤상은 남성용 소변기를 ‘독립 미술가 협회전’에서 ‘R. Mutt 1917’이라고 사인 후 출품했다. 뒤상은 편편한 부분을 바닥에 대고 누여놓아 외설적인 기능성을 떠오르게 하였다(Mink, 2000/2006). 결국 이 작품은 전시하지 못하고, 후에 ‘리처드 머트 사건(The Richard Mutt Case)’이라는 제목으로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위원회 사이에서는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레디메이드는 오브제란 개념으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기존의 관념에 대한 반예술적 행위였지만 예술가에 의해 발견된 기성품도 예술품이 될 수 있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다. 레디메이드는 오브제로서 예술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기성품도 원래 지니고 있던 의미와 기능을 상실시키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서 오브제라는 신개념을 창조해냈다. 이러한 레디메이드 개념은 후에 앙드레 브르통을 통해 최초로 정의되는데, 레디메이드는 ‘예술가의 선택에 의하여 예술품의 지위에까지 오른 공업 생산품’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레디메이드의 우연성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 있다(Partouche, 2005/2007). 레디메이드는 컨템퍼러리 아트의 새로



Figure 5.  
『Fountain, 1917』.  
From Marcel Duchamp. (n.d.).  
<https://en.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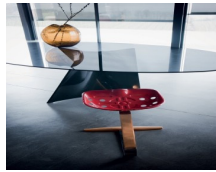


Figure 6.  
『A chille Castiglioni, 1957』.  
From Mezzadro. (n.d.).  
<https://www.zanotta.it>



Figure 7.  
『Modules 400, 1929』.  
From "Roger Tallon". (n.d.).  
<http://www.joron-derem.com>



Figure 8.  
『Robin Hood Gardens, 1970』.  
From Balters. (n.d.).  
<https://www.archdaily.com>

운 영향을 미쳤으며, 작가가 직접 만들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 작가에 의해 발견된 기성품도 예술적 가치를 가진 오브제로 간주하였다.

다다이즘 이후에 많은 영향을 준 레디메이드 오브제는 예술뿐만 아니라, 공예와 건축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킬레 카스틸리오니(Achille Castiglioni)와 피에르 자코모 카스틸리오니(Pier Giacomo Castiglioni)는 트랙터의 시트를 이용한 스툴(stool) <Figure 6>을 디자인하였고, 이는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으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이태리 자노타(Zanotta)에서 생산되고 있다. 1929년 프랑스의 로저 탈롱(Roger Tallon)의 『Modules 400』 시리즈 의자 <Figure 7>는 방음을 위한 마감 재료를 쿠션감이 있는 라텍스 폼으로 사용되어 흥미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2004). 건축에서는 건축가 스미스슨 부부(Alison Smithson and Peter Smithson)의 <Figure 8>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1932년부터 있었던 빌딩을 새롭게 레디메이드 요소로 사용하여 만들었고, 이는 오브제들의 종류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건물이 레디메이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재료와 표면의 다양성과 창문을 통해 비정형적인 기하학적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다이즘 이후 레디메이드를 자신의 예술,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 미술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현대 미술의 발전과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이 레디메이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Park & Lee, 2018).

### III. 현대 패션에서의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 제안

#### 1. 현대 패션에서의 표현된 레디메이드 사례 분석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다다이즘의 레디메이드 성향은 패션에서도 볼 수 있다. 모스키노, 메종 마르지엘라, 준야 와타나베, 베트멍, 빅터앤롤프의 컬렉션에서 보이는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패션 사례를 표현 특성에 따라 재창조성, 탈개념성, 비정형성, 유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모스키노는 프랑코 모스키노(Franco Moschino)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독창적인 조형성을 기반으로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모스키노 다양한 콘셉트 컬렉션 중에 기성품들을 활용하여 레디메이드 패션을 선보이며 이러한 패션은 현 트렌드를 반영한 컬렉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아티자(Artisan) 컬렉션에는 기성품의 사물이 가진 본연의 관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창조하는 예술적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Chon & Bae, 2015). 메종 마르지엘라의 의상은 기존의 오브제를 활용하여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가진 오브제로 재창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세 번째로, 준야 와타나베는 콤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이너인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와 함

게 미학적 콘셉트를 구축했다. 와타나베는 1984년 분카 패션 스쿨(Bunka Fashion College)에서 수학 후 폼데가르송에 입사하여, 패턴사로 일을 시작했으며, 3년 뒤 폼데가르송의 니트웨어 라인 ‘트리코(Tricot)’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면서 1992년 자신의 라인 ‘준야 와타나베 폼데가르송’ 컬렉션을 론칭했다(Li, 2017). 와타나베의 패션에서 그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미의 기준은 그의 과거, 즉 그가 살면서 보고 느낀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Song, 2016). 네 번째로 베트명은 대표 디자이너인 템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를 통해 컬렉션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채워 넣었으며, 그의 형제인 구람 바잘리아(Gram Gvasalia)는 브랜드의 운영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명은 리바이스(Levi's) 진을 리사이클하여 하이 브랜드 컬렉션에 선보이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유행이 지난 의상을 해체하여 재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내면서 대중적이지만 희소성이 있는 컬렉션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빅터앤롤프는 예술성이 높은 패션 컬렉션을 통해 패션 하우스에 입성하게 된다. 설치 및 행위 예술과 흡사한 무대와 의상들 및 퍼포먼스 등은 그들의 이름을 알리게 해준 브랜드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빅터앤롤프는 기존의 브랜드와 달리 기성복 라인을 과감히 버리며 패션의 기본인 예술성에 더 집중하고자 하였고, 기성품을 활용한 다양한 레디메이드 패션을 발표하고 있다.

#### 1) 재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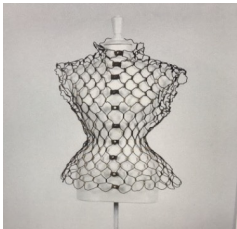





재창조성은 기존 오브제의 기능과 의미를 해체하여 새롭게 조합의 과정을 거쳐 재창조된 미적 특성으로 레디메이드 예술에서 기성품을 해체하고 왜곡하여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여 오브제의 가치를 제시하는 재창조의 특성을 가진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1989/90년 F/W 컬렉션에서 철망(wire netting)으로 만든 재킷을 선보였다(Figure 9). 메종

마르지엘라는 기성품으로 쓰이는 철망을 잘라 재조합의 과정으로 여성 재킷을 완성하여 레디메이드의 해체를 통한 조합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베트명은 2014년 리바이스 진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버려진 리바이스 진을 업사이클링하여 하이패션(high fashion)으로 완성하였다(Figure 10). 두벌의 진을 해체하여 재조합함으로써 기성품의 의미를 활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하였으며, 이러한 재창조성을 지닌 디자인은 독특한 희소성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2019년 컬렉션에서 기성복 원단을 재조합하여 디자인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플라워 패턴의 시폰 원피스에 후드 티셔츠의 소매를 연결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레디메이드 패션을 선보였다(Figure 11). 준야 와타나베의 2019년 2020년 S/S, F/W 컬렉션은 다양한 재창조성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Figure 12>는 트렌치 코트를 해체하여 재조합하여 완성한 드레스이며, <Figure 13>은 기성품의 라이더 재킷을 해체하여 재조합하여 완성한 스커트로 칭바지를 겹겹이 연결하여 새로운 형태의 오버롤 맥시스커트를 재창조하여 선보였다(Figure 14). 이렇듯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기성품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실루엣을 만들기도 하고, 기성품 그대로 패션에 접목시켜 예술성을 강조한 오브제 패션을 선보이는 등의 다양한 재창조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 2) 탈개념성

탈개념성은 오브제를 패션 소재로 활용하면서 기존의 미의식과는 반대되거나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마르셀 뒤샹이 예술가의 선택에 의한 오브제도 예술품의 영역으로 확장했던 것처럼 패션에서도 패브릭 원단에서 벗어나 기성품 오브제를 소재로 활용하여 발표하였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Figure 15>에서 종이 카드를 연결하여

Table 1.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ady-made Fashion: Re-Creati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Creation				
재창조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상실한 오브제가 패션으로 재창조되어 예술적 가치를 가짐</li> <li>- 기성품을 활용하여 해체하고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가치를 높임</li> <li>- 업사이클링을 통한 유니크한 희소성을 부각함</li> </ul>		
	사례	 <p>Figure 9. 메종 마르지엘라. From Ian. (2009). p. 200.</p>	 <p>Figure 10. 베트멍 x 리바이스 진 컬래버레이션. From Vetements_official. (n.d.). <a href="https://www.instagram.com">https://www.instagram.com</a></p>	 <p>Figure 11. 베트멍 2020 S/S. From Spring 2020 Ready-To-Wear Vetements. (n.d.).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12. 준야 와타나베 2020 S/S. From Spring 2020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13. 준야 와타나베 2020 F/W. From Fall 2020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14. 준야 와타나베 2019 S/S. From Spring 2019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a).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베스트를 디자인하였고, 2012년 F/W 컬렉션에서 야구 글러브를 업사이클링 하여 완성한 지속가능한 드레스를 <Figure 16>과 같이 선보였다. 2015년 F/W 컬렉션에서 <Figure 17>과 같이 감자포대를 재활용하여 트렌치 선보였고, 이는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 패션으로 볼 수 있으며 탈개념성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준야 와타나베는 2016년 아웃도어 브랜드인 카리모어(Karimor)와 협업을 진행하여 백팩을 외투와 결합한 디자인 <Figure 18>을 선보였는데, 이는 오브제를 패션 상품에 결합하여 완성하여 기존 백팩의 개념을 벗어난 탈개념성을 보여주었다. 2018년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와

진행한 컬래버레이션에서 아우터에 백팩을 연결한 새로운 개념의 패션인 <Figure 19>는 기성품을 패션에 접목하여 완성한 레디메이드 패션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베트멍은 2020년 F/W 컬렉션에서 응원을 위한 배너를 모아 드레스로 완성하여 기성품 본연의 개념을 넘어서는 디자인을 완성하였다(Figure 20).

예술은 창작을 넘어 예술가에 의해 발견된 기성품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 오브제로 간주하는 다다이즘의 레디메이드는 예술의 범주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발견된 오브제의 사용으로 기존의 관



Table 2.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ady-made Fashion: Non-concepti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on-conception				
탈 개념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션에서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미의식과는 반대되거나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시도함</li> <li>- 예술을 패션에 활용하면서 형식에 대한 개념을 확장함</li> <li>- 오브제인 기성품의 배치와 조합, 선택 등으로 기존의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 제안</li> </ul>		
	사례	 <p>Figure 15. 메종 마르지엘라. from Ian. (2009). p. 261.</p>	 <p>Figure 16. 메종 마르지엘라 2012 F/W. From Fall 2012 Couture Maison Margiela. (n.d.a).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17. 메종 마르지엘라 2015 F/W. From Fall 2012 Couture Maison Margiela. (n.d.b).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18. 준야 와타나베 x 카리모어 컬래버레이션 2016. From "JUNYA WATANABE'S". (2017). <a href="https://japangoodsfinder.com">https://japangoodsfinder.com</a></p>	 <p>Figure 19. 준야 와타나베 x 노스페이스 컬래버레이션 2018. From "JUNYA WATANABE'S". (2017). <a href="https://japangoodsfinder.com">https://japangoodsfinder.com</a></p>	 <p>Figure 20. 베트멍 2020 F/W. From Fall 2020 Ready-To-Wear Vetements. (n.d.).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념에서 벗어나 배치와 조합, 선택 등으로 탈개념성의 의미를 패션의 개념으로 내포한다. 이러한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3) 비정형성

비정형성은 오브제의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조형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품을 해체하거나 왜곡, 확장하는 형태를 넘어서 자르고 이어 붙이는 등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며 규칙성을 벗어나 우연성을 통한 새로운 레디메이드의 가치를 살리는 패션을 제안한다. 모스키노는 2017년 S/S 컬렉션에서 버려진 플라스틱과 비닐을 활용한

의상을 선보였는데 업사이클링으로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 하이패션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재창조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원단이 아닌 종이백의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패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비정형성을 볼 수 있다 (Figure 21). 빅터앤롤프는 2016년 Fall 쿠티르에서 기존에 남아 있던 원단을 직조해 원단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단추들로 디테일을 더했다(Figure 22).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원단을 직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조된 원단들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으며, 규칙적이지 않은 패턴과 질감의 소재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서 새로운 질감과 형태를 표현한



비정형성을 볼 수 있다(Figure 23). 준야 와타나베는 데님과 원단을 패치워크 기법 사용하여 컬렉션을 진행하여 기존의 재료들이 조형적인 형태의 일관성을 지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정형성을 띠고 있다(Figure 24-25). 베트멍은 리바이스 진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버려지는 리바이스 진을 모아 다시 리사이클링 하여 새로운 리바이스 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한 피스를 만드는 데 6시간을 투자하여 진행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의 리바이스 진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베트멍의 행보는 기존의 버려지는 의상을 가지고 실

용성을 지닌 디자인과 함께 베트멍만의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멍은 브랜드 네임을 형상화한 타이포그래피를 실크스크린과 와펜을 붙여 디자인하여 탈개념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6). 기존 오브제를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비정형의 형태로 레디메이드 패션을 완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디자이너는 비정형적 형태의 오브제를 통한 형태와 개념의 전환을 시도하여 새롭게 창작한 오브제를 표현하고 해석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ady-made Fashion: Atypicalit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typicality				
비정형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브제의 전형적인 형태와 개념의 전환하여 비정형성의 가치를 가짐</li> <li>- 새로운 매개체의 창작 및 오브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li> <li>- 직조, 니트, 패치워크를 통해 새로운 원단을 통한 접근법</li> </ul>		
	사례	 <p>Figure 21. 모스키노 2017 F/W. From Fall 2017 Ready-To-Wear Moschino. (n.d.).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22. 빅터앤롤프 2016 F/W. From Fall 2016 Couture Viktor &amp; Rolf. (n.d.a).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23. 빅터앤롤프 2016 F/W. From Fall 2016 Couture Viktor &amp; Rolf. (n.d.b).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24. 준야 와타나베 2016 S/S. From Spring 2016 Mens Wear Junya Watanabe. (n.d.).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25. 준야 와타나베 2019 S/S. From Spring 2019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b). <a href="https://www.vogue.com">https://www.vogue.com</a></p>	 <p>Figure 26. 베트멍 x 리바이스 진 컬래버레이션. From Vetements_official. (n.d.). <a href="https://www.instagram.com">https://www.instagram.com</a></p>

## 4) 유희성

유희성은 기성품의 특징을 역이용하여 일부러 자극적인 소재나 상황을 선택하여 그 당시 시대의 해학과 허풍을 표현할 수 있으며 외설적 표현 등을 통해 독특한 희소성의 의미를 가지는 특징을 말하며 이는 미적 범주 중에서 끝계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Kim, 2014). <Figure 27>은 기성품인 곰 인형을 오브제로 사용한 모자와 스카프 디자인으로 곰 인형의 형태를 살리되 새로운 의미가 기능으로 패션에 적용되어 재탄생 된 패션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98/1990년 F/W 컬렉션에서는 나이프, 포크와 냅킨을 활용한 재킷을 선보였고 이는 마치 식탁 위의 테이블 세팅을 유희적 표현으로 풀어 디자인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28). 또한 모스키노는 <Figure 29>처럼 쇼팽백을 활용한 원피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쇼팽백과 같은 소모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패션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독특한 유희적 표현을 완성하였으며, 1994년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브라지어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드레스에서 볼 수 있다(Figure 30). 브라지어를 겹겹이 레이어

링한 볼륨감 있는 스커트로 브라지어는 기성품이 갖는 고유의 기능과 의미는 상실하였으나 조형미를 살려 완성한 레디메이드 패션으로 유희적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 유희성은 패션 트렌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개성을 표현하며 브랜드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형태를 그대로 차용한 패션을 재현하면서 희소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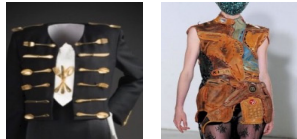
## 2. 지속가능한 레디메이드 패션의 가치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패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 보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성품의 재사용을 통해 경제적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패션의 창의적인 조형성을 통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레디메이드 패션에서 나타나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로 제안할 수 있는 특성을 환경성, 경제성, 희소성으로 분류하여 제안하고자 한다(Table 5). 환경성을 고려하고 경제성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 디

Table 4.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ady-made Fashion: Humo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umor				
유희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나 상황을 선택하여 표현함</li> <li>- 현시대의 해학과 허풍을 표현할 수 있으며 외설적 표현 또한 가능함</li> <li>- 희소성의 특징을 지님</li> </ul>		
	사례	 <p>Figure 27. 모스키노. From Croft, (2018). <a href="https://www.vogue.co.uk">https://www.vogue.co.uk</a></p>	 <p>Figure 28. 모스키노 1998/90 F/W. From "Woman's Ensemble". (n.d.). <a href="https://collections.lacma.org">https://collections.lacma.org</a></p>	 <p>Figure 29. 모스키노. From Casadio, (2001). no page.</p>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Value: Environmental, Economic, Rare.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			
특성	환경성	경제성	희소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 과정</li> <li>- 생분해성 천연 재료를 사용</li> <li>- 제품의 생애를 연장하여 재사용</li> <li>- 버려지는 양의 축소</li> <li>-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에 사용되는 비용의 축소 및 이익을 창출</li> <li>- 기존 제품들과는 다른 측면이 소비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품을 통한 작품성</li> <li>- 상품 각각 독창성 부여</li> <li>- 희소가치를 부여함</li> <li>-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패션</li> </ul>
사례			

자인을 갖춰 디자인의 희소성을 갖춘다면 레디메이드를 접목한 패션의 가치는 두드러지게 성장할 수 있다. 환경성, 경제성, 희소성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패션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1) 환경성

환경성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생분해성 천연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생애를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Chon & Bae, 2015). 현대의 빠른 발전은 트렌드의 회전율을 높였고, 매 시즌으로 인해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패션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하이패션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성에 관한 노력으로 업사이클링과 리디자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에 버려지는 의류 부자재를 줄이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마르시엘라의 감자포대를 활용한 레디메이드 패션은 제작 과정에서 버려지는 제품의 생애를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점에서 환경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빠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버려진 기성품을 재사용하여 형태를 해체와 왜곡을 통해 재창조하여 새로운 개념을 부여

한 레디메이드 패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경제성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 중에 경제성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Chon & Bae, 2015). 재사용된 원단은 디자인의 원가를 절감하게 되고 패치워크, 직조, 니트, 프린팅, 자수 등의 기법을 통해 새로운 원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준야 와 타나베는 레디메이드 데님으로 기성품을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자인 가치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을 높였다. 기성품을 활용하여 레디메이드 한 패션은 소재의 독창성과 희소성을 높여 원가 절감에 디자인 비용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가치로서의 경제성을 가진다.

### 3) 희소성

희소성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패션에서 주로 나타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성을 말하며, 기성품을 활용한 레디메이드의 예술성이 접목된 패션에서 주로 나타난다. 새롭게 재창조된 디자인은 미

적 가치를 높여 주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예술적 패션으로 분류된다. 기성품을 모아 해체하고 왜곡하고 형태의 정형성을 반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레디메이드의 미적 가치는 희소가치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희소성을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희소성을 지닌 패션은 소비자들에게 재료의 독창성과 실루엣의 특이성이 홍보되어 구매를 자극하기도 한다. 예술품과 디자인의 조합은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성 패션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레디메이드 특성을 가진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환경성과 경제성과 희소성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기성품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예술성을 더해 가치를 높임으로써 희소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경제성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해체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시도를 많이 한다면, 희소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이에 지속가능한 패션을 환경적 측면과 함께 경제성과 희소성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면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패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 IV. 결론 및 제언

다다이즘은 예술가에 의해 발견된 레디메이드도 오브제로 인정하면서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이러한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예술은 디자인, 패션, 건축의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기성품을 활용한 레디메이드 패션을 사례 분석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패션 브랜드 모스키노, 메종 마르시엘라, 준야 와타나베, 베트멍, 빅터앤롤프 등의 컬렉션에 나타난 레

디메이드 패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창조성, 탈개념성, 비정형성, 유희성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현대 레디메이드 패션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창조성의 특성에서 기성품을 해체하고 재조합을 통해 본래 오브제의 미적 형태가 상실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탈개념성의 특성에는 기성품의 오브제의 형태를 활용하나 기존의 개념에 반하거나 그 개념을 벗어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비정형성의 특성은 기존의 오브제를 패치워크, 직조, 니팅, 프린팅의 기법을 더해 전혀 다른 형태의 조형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볼 수 있었으며, 넷째, 유희성은 재미나 해학을 재료나 기법을 통해 표현하는 특성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레디메이드 패션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가치를 제하고자 하였고 그 발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었다.

레디메이드 패션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환경성, 경제성, 희소성으로 분류하여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버려진 소재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패션을 위한 환경성이 가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 남은 소재를 재사용하는 등의 재료의 비용 절감과 디자인의 가치를 높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성의 가치로 제안이 가능하였고 셋째, 기성품을 활용하여 레디메이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인 희소성의 특성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보이는 레디메이드 패션의 사례를 연구하여, 미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향후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제안하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레디메이드를 패션에 활용한 미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 References

- Balters, S. (n.d.). AD Classics: Robin Hood Gardens / Alison and Peter Smithson. *Arch daily*.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archdaily.com/150629/ad-classics-robin-hood-gardens-alison-and-peter-smithson>
- Casadio, M. (2001). *Moschino*. Milano: Skira.
- Chon, Y. M., & Bae, J. M. (2015). Ecological aesthetic interpretation of sustainable design approaches implied in Martin Margiela's Fash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6), 495-510.
- Croft, C. (2018, February 21).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uk/gallery/power-of-italy-fashion-exhibition>
- Evening dress. (n.d.). V&A.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collections.vam.ac.uk/item/O72937/evening-dress-moschino-franco/>
- Fall 2012 Couture Maison Margiela. (n.d.a).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couture/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14>
- Fall 2012 Couture Maison Margiela. (n.d.b).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couture/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18>
- Fall 2016 Couture Viktor & Rolf. (n.d.a).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couture/viktor-rolf/slideshow/collection#3>
- Fall 2016 Couture Viktor & Rolf. (n.d.b).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couture/viktor-rolf/slideshow/collection#4>
- Fall 2017 Ready-To-Wear Moschino. (n.d.).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moschino/slideshow/collection#51>
- Fall 2020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8>
- Fall 2020 Ready-To-Wear Vetements. (n.d.).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5>
- Frank, P. (2006). *Prebles' ARTFORMS* (eighth edition). NJ: Pearson, Prentice Hall.
- Ian, L. (2009). *Maison Martin Margiela*. New York: Rizzoli.
- Jean Arp. (n.d.). *Wikipedia*. Retrieved June 10,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wiki/Jean\\_Arp#/media](https://en.wikipedia.org/wiki/Jean_Arp#/media)
- Jeong, H. N. (2008). *A study on concept of anti-art by Marcel Duchamp*.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John Heartfield. (n.d.). *Wikipedia*. Retrieved June 10,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wiki/John\\_Heartfield#/media](https://en.wikipedia.org/wiki/John_Heartfield#/media)
- JUNYA WATANABE'S INNOVATIVE BACKPACK JACKET. (2017). *Japan goods finder*.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japangoodsfinder.com/junya-watanabes-innovative-backpack-jacket/>
- Kim, B. N. (2014).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brand MOSCHINO*.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R. O. (2012).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onceptual art in fashion design: With a focus on the works of Hussein Chalayan and Martin Margiel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kyunwan University, Seoul.
- Kim, S. A. (2004). Found objects in furniture design. *Journal of Korea Furniture Society*, 15(2), 41-51.
- Lee, G. H. (2007). *The study of 'Anti-Art' of Marcel Duchamp: For dada and ready m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i, J. (2017). *Appear in Japanese fashion designer works expression elements of avant-gar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Marcel Duchamp. (n.d.). *Wikipedia*. Retrieved June 10,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wiki/Marcel\\_Duchamp#/media](https://en.wikipedia.org/wiki/Marcel_Duchamp#/media)
- Mezzadro. (n.d.). *Zanotta*.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zanotta.it/en-us/products/stools/mezzadro>
- Mink, J. (2006). *Marcel Duchamp* (Jeong, J. A., Trans.). Seoul: Maroni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Nadja (novel). (n.d.). *Wikipedia*. Retrieved June 10,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adja\\_\(novel\)#/media/File:Nadja\\_livre\\_de\\_poch.jpg](https://en.wikipedia.org/wiki/Nadja_(novel)#/media/File:Nadja_livre_de_poch.jpg)
- Park, J. H., & Lee, Y. S. (2018). Inframing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surfaces: On the emergence of the ornament in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1), 68-79. doi:10.14774/JKIID.2018.27.1.068
- Partouche, M. (2007). *Marcel Duchamp: sa via, meme* (Kim, Y. H., Trans.). Paju: Hangil Art.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Roger Tallon (Born 1929). (n.d.). *Christophe Joron-Derem*.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www.joron-derem.com/html/fiche.jsp?id=116798&np=&lng=fr&npp=10000&ordre=&aff=&r=>
- Ryu, T. I. (2005). *A study of anti-art spirit and ready-made by Marcel Duchamp: Focused on his influence in modern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Shin, J. W. (2016). *Marina Abramović's repeated performance: Focusing on document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dematerialized art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Song, B. R. (2016, September 29). Collective Intelligence-① 준야 와타나베 [Collective Intelligence - ① Junya Watanabe]. *Vogue Korea*. Retrieved March 21, 2020, from <http://www.vogue.co.kr/2016/09/29/collective-intelligence-%E2%91%A0-%EC%A4%80%EC%95%BC-%EC%99%80%ED%83%80%EB%82%98%EB%B2%A0/>
- Spotlight on eco-friendly fabric. (2007, March 26). *Apparel*

- news. Retrieved September 21, 2008, from [http://www.aparelnews.co.kr/2011/pnews.php?table=paper\\_news&query=view&uid=40058](http://www.aparelnews.co.kr/2011/pnews.php?table=paper_news&query=view&uid=40058)
- Spring 2016 Mens Wear Junya Watanabe. (n.d.).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mens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27>
- Spring 2019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a).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3>
- Spring 2019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b).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21>
- Spring 2020 Ready-To-Wear Junya Watanabe. (n.d.).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2>
- Spring 2020 Ready-To-Wear Vetements. (n.d.). *Vogue*.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3>
- Suh, H. S. (2014). A study of the formative features and aesthetic values of eco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Design*, 14(1), 69-84.
- Suh, J. H.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trend of modern art on floral art: Focusing on the realism, dadaism, minimalism and surre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Vetements\_official. (n.d.). *Instagram*.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www.instagram.com/vetements\\_official/?hl=ko](https://www.instagram.com/vetements_official/?hl=ko)
- Woman's Ensemble, 'Show-off'. (n.d.). *LACMA*. Retrieved June 15, 2020, from <https://collections.lacma.org/node/211369>
- Yoon, H. Y. (2017). *The up-cycling light art research using ready-made artic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Value Proposition of Sustainable Fashion Using Ready-Made

Jung, Hee Jung • Choi, Chul Yong<sup>+</sup>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ready-made in Dadaist art and to raise the aesthetic value of the domestic sustainable fashion fiel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sustainability through the ready-made case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analyzes the value of sustainable fashion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fashion trends using ready-mad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esign cases using ready-made, focusing on the designer brand collections of Moschino, Martin Margiela, Junya Watanabe, Vetements, and Viktor & Rolf,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As a result of establish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 of Dadaism and analyzing the formative value of ready-made shown in the above brand collections, first, there was re-creation with new formativeness due to the loss of the original aesthetic form of the object, and second, the form of ready-made products. However, it was derived from four types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non-conception that deviated from the existing aesthetic consciousness and concept. Thirdly, atypicality that recombined the form to create a new form, and finally, the humor of the times and the playfulness expressing the fun. The value of sustainable fashion with these characteristics was divided into the eco-friendliness of reusing discarded products, the economy that can generate profits by reducing the cost of materials, and the artistic scarcity of applying ready-made goods to fashion,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scarcity were high. The research proposed sustainable fashion value that can enhance eco-friendliness and scarcity by utilizing ready-made to add artistic value of design and create synergy of economic feasibility.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paper will expand the scope of the fashion design field with the various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ready-made of sustainable objects and be used as new guidelines.

Key words : ready-made, dadaism, sustainable fashion

